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새고려신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7년 2월 10일(금) ..(음력 1월 14일).. Пятница 10 февраля 2017 г. № 5(11672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2월 6일(월)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청년 전문가>콩쿠르 개막식. 올레그 코제마코 сахалин주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전문학교 학생 120여명은 이번에 19개 전문분야(요리, 제빵과자, 디자인, 패션 기술, 미용, 교육 등)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학교학생들을 위한 경쟁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우승자들은 сахалин주 대표팀 일원으로 편성되어 5월에 크라스노다르에 개최될 전국 청년 전문가 챔피언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예식기자 촬영)

<극동 헥타르: 극동토지 무상 배분> сахалин주 3위

극동지역 토지를 러시아국민 누구나 제 공받을 수 있는 <극동헥타르>프로그램 3 차를 시작한 이래로 극동연방지구 주체전 권위원회에 5만930건의 신청서가 제출 된 가운데 그중 1만1551건은 2월 초에 제 출되었다고 극동개발부 홍보실이 전했다.

국민 중 대부분의 요청 건수는 프로모 리에 연방 토지는 12853 건, 사하공화국(야 쿠치아)은 11160 건, сахалин주는 5308 건 으로 토지의 인기가 나타났다.

3차를 시작할 때부터 연해주 주민들의 신청서는 1700여 건이 넘었고 하바롭스 크주민들은 약 1100 건의 신청서를 제출했 고,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 주민에게서는 661건, 사하공화(야쿠치아)에서는 500여 건, сахалин주에서는 500여 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페테르부르크주민들은 200 여 건을 스웨트드롭스크주에서는 100여 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상 새 정착지에 이주하여 정착 할 공동신청서 모집에서는 5000건이 넘 었고 그중 가장 많은 공동신청서는 사하 공화국에서 2500여 건으로 기록되었다. (сахалин주보건부 홍보실 자료에서)

주지사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내 점검

지난 8일(수) сахалин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나드사진 시장을 비롯해 시·주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3 시간 동안 시내를 다니며 도시 정비정돈 계획의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 한 점들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현 도시 외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주택의 도색에 부조화로운 빛 깔 선택, 건축양식상 통합되지 않는 점, 통일된 건축 스타일을 개발하여 적 용하지 못한 점, 진행에 있어 작업의 비체계화 등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나드사진 시장은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계획에 따라 여름에 주택 도색작업, 도시 외관을 해치는 광고물들을 정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도심 내 공사장의 보안상태, 도심 건물 시설 설비, 수리 및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을 시행정부에 요구했다.

알타이 농장 지도자 сахалин 방문

이번 주 알타이 지방 축산업 전문가들 대표단이 сахалин주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주로 농장주들로 구성되었다. 러시아에서 알타이의 축산업은 선 두에 선 산업으로 <알타이 마스플렘협회>는 농축산업의 전문적 기술과 우 량종 개선과 가장 현대적 축산기술이 정착된 곳이기도 하다. 2016년에는 сахалин과 알타이 지방 농장과의 적극적인 축산기술 개발 협력 아래 협약 의 일환으로 섬지역에 헤리퍼드소와 카자흐 소 400여 마리를 들여왔다.

이들 알타이축산업 대표단은 소 사육 문제로 сахалин 축산관계 전문가들 과 세미나를 가지며 сахалин에 축산농장 <콤포몰레즈>, <코르사코브스키>, <소콜롭스키>등 습호즈를 방문하여 알타이에서 보낸 소들이 сахалин에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단신

сахалин 어선, 명태 5만5000톤 어획

최근에 오호츠크해에서 명태와 청어잡 이가 한창이다.

сахалин주 수산관리국 엄 세르게이 부국 장에 따르면 сахалин주 23개 수산업체들의 어선 48척이 어획에 나선 가운데 2월 7일 현재 сахалин 수산업체들의 명태 어획량은 약 5만500 톤에 이르며 청어의 어획량은 평균치였다고 보고했다.

작년에 сахалин 및 쿠릴 수산업체들은 명 태 47만 톤과 청어 4만800톤을 획득했었다.

<сахалин-한국: 세 책의 이야기> 작가의 밤 행사 개최

2월 11일(토) 오후 5시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сахалин섬> 체호브책 박물관에서 <сахалин-한국: 3권의 책 이야기>행사가 개최 된다. 이날 сахалин한인 역사 연구로 잘 알려진 아나톨리 쿠진 역사학 박사, 진 율리아 준박사와 박승의 전 сахалин국립대 교수가 각기 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나톨리 쿠진의 경우 2년 전에 한국어 로 번역되어 한국에서 출판된 <сахалин한인 사>, 진 율리아는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된 자신의 논문집 <сахалин한인 디아스포라>, 박승의 씨는 자신이 러시아어로 번역한 류 시욱의 <산중 반월기> 출판으로 책에 관한 소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사 주최 측은 сахалин한인사에 관 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 했다.

오하구역 학교 8개 휴교로 격리


지난 7일(화) 후보건부에서 있는 기자 회견에서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독 감으로 인해 오하구역 8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하구역에 실 내 대중 스포츠 및 문화행사들도 취소된 상태이다. 돌린스크구역 소콜촌 학교 11 개의 학반들도 휴교에 들어갔고 아니와 학 교 내의 유치부도 휴원에 들어갔다.

일주일 동안 주내에서는 급성호흡 바이 러스 감염과 독감으로 4665건이 접수되 었다. 의료전문가들은 감염률은 12.8%로 사람들이 밀집한 곳은 피하고 감염시 반 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의사의 처방을 받도 록 권고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0세-2세 영유아의 예방과 보호에 주의하기를 당부 했다.

сахалин 박물관 전문가 자질 향상

сахалин예술콜레즈에서 <박물관들의 연 구활동>전문보강프로그램으로 국립 및 지 방 박물관 전문가들의 연수가 개최되었다. 라잔 주 문화관광연구센터의 <러시아博物 관의 백과전서> 대표자 이리나 추비로바가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유즈노쿠 릴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스미르니흐, 홈스크,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 박 물관 전문가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형식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참가자 모두 자 질 향상에 대한 연수 수료증을 받았다고 전 해졌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도 сахалин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сахалин 모든 우체국에 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에서 근무한 3년이 가장 행복한 기간

사할린한국교육원 장원창 원장과의 인터뷰

사할린한국교육원 7차 장원창 원장의 임기가 올 2월 20일부로 끝난다. 본 사 배순신 기자는 장 원장님과 만나 사할린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원장님께서 사할린에 오신 것 같은데 3년이 다 지나갔네요. 그 동안 원장님으로서 실시한 행사 중에 어느 행사가 가장 의미있다고 보십니까?

- 그러게요. 세월이 참 무섭네요. 새 고려신문과 옛그제 부임 인터뷰한 것 같은데, 벌써 귀임인터뷰하네요. 3년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 같네요.

교육원에서 하는 일상적인 교육활동 외에 문화행사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4년 고려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기념 한-러 우호축제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드리트리 흐워스토브스키와도 같이 공연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KBS 실내교향악단 공연을 조직한 것은 아직도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이 행사는 특히 영사출장소와 사할린주한인회와 대한민국한인회가 공동으로 합심하여 만든 행사로 한인사회 단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 덕분에 한국의 K-클래식을 러시아에 알리고 사할린한인들의 위신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 원장님의 업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이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서 하시는 활동을 소개하자면요?

- 교육원에서는 한국어강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한국어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을 운영해 왔고요, 한국문화강좌로는 한국요리교실, 한국노래교실, 한국무용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국어 강좌에 수강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원 강의실 사정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23년 전 한국교육원 설립 당시에 비해 동포사회의 한국어 학습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사할린한국교육원 강습생 초상화를 그리자면요?

-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현재 190여명 정도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한인동포가 약 60%이고 나머지는 다른 민족입니다.

이제 한국어는 동포사회의 언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민족이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고 우의를 다지는 무지개떡이라고나 할까요?

이번에 교육원에서 한국어교육을 14세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세부터 60세대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중 25-33세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 한국유학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교육원을 통해 어떤 장학프로그램이 있는지요?

- 국가차원의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정부초청 장학생사업입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1년 한국어교육을 포함해서 학사는 5년, 석사는 3년, 박사는 4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만큼 가장 위신 높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혜택도 가장 좋습니다. 추천은 각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들이 합니다. 외국인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어서 각 나라에 쿼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커서 사할린 학생들이 그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2명이 통과했는데 재작년에 한 학생은 석사과정, 작년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을 따낸 학교 졸업생이 학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학사는 유일하게 사할린에서 뽑혔습니다.

국가에서는 학비, 생활비, 항공 요금도 지원합니다.

또 사할린학생들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를 위주로 하는 초청장학프로그램으로 거의 해마다 한국어 유학을 갑니다. 정부초청사업과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일반 대학교들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여러 장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원장님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고 하니 사할린은 비교적 어떻게 보십니까?

- 말씀하신 세 지역은 구소련권 국가들로 우리 동포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동포들은 고려인이라고, 사



할린동포들은 한인이라 부르는데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처럼 동포사회에도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주역사도 다르고 출신지역도 다르고 말도 달라서 아마도 의식도 차이가 있나 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할린 한인은 아직도 우리말을 거의 모국의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한국어도 방언을 사용하는 데 반해 사할린한인들은 한국어를 비교적 정확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외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주역사도 짧지만 사회단체와 우리말방송과 새고려신문과 같은 동포언론, 국립대 한국학과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 사할린에 오시자마자 여러 계획들과 소원이 있으셨을텐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는지요?

- 누구나 일을 마칠 때면 자신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해 보는데, 역시나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육원 자체에서 하는 한국어강좌와 한국문화강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문화행사 부문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전임 박덕호 원장님과 사공장택 출장소장님 덕분이었습니다만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회에 걸친 사할린 한-러 우호축제는 양국 간의 우의 증진과 사할린한인동포 사회에 한국문화를 소개하

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새고려신문에 첫 인터뷰를 하셨을 때 사할린한인동포 관련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걸 하실 수 있었나요?

- 교육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구소련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할린한인동포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했는데, 교육원의 일이 만만치 않아 연구활동은 못했습니다.

- 교육원장으로서 언제 만족감을 느꼈습니까?

- 네, 저는 사할린교육원장으로 근무한 3년이 제 교직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육원장으로서 근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동안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보았던 사할린한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한인사회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한인사회의 문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귀국을 해서라도 사할린한인동포 관련 일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할린의 자연적인 삶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호츠크해 바다 낚시, 부세호수의 조개잡이, 고르닉 위스두호의 스키 등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생활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 사할린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요.

-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할린한인동포 여러분! 제가 교육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제가 교육원장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이지만 30년을 같이 한 것 같은 친밀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사할린은 결코 먼 나라가 아님을 새삼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 다시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유즈노사할린 스키출장소, 사할린주한인회장단, 코르사코브시 한인회장단, 한국어교육자 여러분, 한국어 언론단체, 대한민국한인회와 그리고 교육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포 여러분께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사할린동포를 위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과 인연을 끊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새 일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모저모

사할린선수, 제 13 회 유럽 청소년올림픽 축제 참가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터키의 에르주룸에서 제 13회 유럽 청소년 동계올림픽 축제가 개최된다. 대회에 유럽 39개국의 14세부터 18세의 청소년 선수들 약 700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9개 스포츠 종목(스키 점프, 컬링, 스노우보드, 바이애슬론, 알핀 스키, 아이스 하키, 쇼트 트랙, 휘저,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

얼마 전에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되었다. 쇼트리스트에는 76명의 선수들이 올랐다. 이중 8명은 알핀 스키와 스노우보드 선수다. 그중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청소년알핀스키·스노우보드스포츠학교 선수들인 레오니드 트라소브와 블라디슬라브 오시포프가 있다고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XIII Европейском юношеском олимп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С 11 по 18 февраля в Эрзуруме (Турция) пройдет XIII Европейский юношеский олимпийский зимний фести

тываль.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около 700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18 лет из 39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Они определяют сильнейших в девяти видах спорта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керлинг, сноуборд, биатлон, горные лыжи, хоккей на льду, шорт-трек,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на коньках, лыжные гонки).

Накануне был утвержден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остав олимпийск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В шорт-лист вошли 76 спортсменов.

Восемь из них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В их числе воспитанники СШОР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и сноубор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еонид Трясов и Владислав Осип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고르닉 위스두호>스키장, 주말에 22 시까지 개장

2월 3일부터 금, 토, 일에는 <고르닉 위스두호> 스포츠관광단지가 22시까지 개장할 것이라고 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에서 알렸다.

스키장단지 지도부는 사할린주민들의 요청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편리를 위해 스키장 상부에 추가매포소도 열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쇄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에는 산악스키와 스노우보드의 마니아들도 끊이지 않

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스포츠선수들과 아마추어 스포츠인들로 스키장 운영시간의 연장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했습니다"라고 스포츠관광단지개발 김희운 사장은 강조했다.

개장 연장시간과 함께 케이블카 운행시간 연장으로 <고르닉 위스두호>스키장의 서남쪽에 조명도 밝히게 되었다. 이곳에는 송전탑 122개가 세워져 있고 연장된 구간은 4,2킬로미터로 조성되었다.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уикенд работает до 22:00

С 3 февраля по пятницам, субботам и воскресеньям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22:00,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мплекса учли пожела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увеличили рабочее время на один час. В дополнение к этому для удобства отдыхающих открыла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касса на верхней площадке СТК.

- Наплыв туристов не прекращается даже в будние дни. На горе постоянно катаются любител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портсменов и просто гуляющих высказывали предложения о продлении рабочего дня. Вот мы и решили пойти навстречу нашим посетителям,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по развитию СТК Хиун Ким.

(8면에 계속)

사할린주한인회 소식

지방한인회 음력설맞이 행사 지원

사할린주 한인회 소식에 따르면 올해 각 지방 한인회들은 음력설을 맞이하여 잔치를 열었다고 전했다. 27일에는 아니와와 빅코브에서 음력설을 축하했고, 28일에는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크라스노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고르노자위드스크에서, 29일에는 홈스크에서 각기 음력설맞이행사를 열었다.

이날 홈스크한인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과 보컬리스트 폴리나 랍추크, 율리아 코즈마료와를 초대하기도 했다.

체호브 설맞이 행사에는 현지 사업가들이 후원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 60여명이 참가하여 설잔치 기분이 물씬 났다. 여기에 후원자들은 <하늘> 사물놀이팀의 공연을 부탁하면서 설맞이 흥은 절정에 달했다.

주한인회는 설맞이 행사 진행을 위해 17개 지방한인회에 1만 5000 루블리씩 지원했다고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이 밝혔다.

◀ 체호브 설맞이 행사. (주한인회 제공)



책소개

섬의 세계

사할린국립대 출판소에서 엘레나 이콘니코와와 알렉산드라 니카노와가 공동으로 쓴 연구서 <20-21세기 일본문학 속의 사할린과 쿠릴 섬>이 출간되었다. 책은 20세-21세기에 사할린과 쿠릴 섬을 찾아왔던 20명 이상의 일본 소설가와 시인들의 예술적이고 예술정론적인 작품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학술서임에도 폭넓은 독자층에게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쓰여졌다. 저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일본 전통문학과 별개로 구분되는 문학들과 카라후토시대(1905- 1945) 즉, 러·일 전쟁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의 시기에 사할린에서와 사할린에 대해 쓰여진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작품 속에는 한국적인 요소도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904-05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 또한 1945년 극동지역에서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은 20-21세기 일본 작가들의 작품 속에 표현되어 있다. 사할린과 쿠릴 섬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본문학 속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관련된 사실들을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다.

중요한 주제인 사할린과 쿠릴 섬에 대한 일본문학은 다음과 같이 성립된다:

전반적으로 사할린과 쿠릴 섬에 대한 것과, 특히 지역토착원주민(아이누족, 니브호족, 울타족)에 대한 주제: 사할린에서의 징역살이와 극동지역의 자원에 대한 기록에 대한 언급, 홋카이도섬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하는 섬들의 지리적 환경, 마치 금지된 듯한, 신비한 원시적인 장소로서 사할린과 쿠릴이다.

이 연구서는 <실제 사할린과 일본문학의 작은 고향으로서 사할린>이란 장 속에서 이회성 한인 출신의 일본 작가를 소개한다. 일본의 통치 아래 남사할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회성 씨는 가족과 함께 해방 후 스탈린의 억압정책을 피해 일본인처럼 일본 적 십자의 배에 올라 일본으로 향하고 후에 1998년에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작가로서 일본에서 작품활동을 한다.

1981년 다시 사할린섬을 찾은 그는 <사할린 방문기>를 쓰고 그 책의 <사할린 한인 첫 디아스포라와 2세대의 대표자들>이란 장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통한 비극과 고통을 표현했다.

그가 민족의 정체성을 주제로 쓴 책으로는 <나의 사할린>, <금단의 땅>, <도망자의 이력> 등 작품을 통해 이 작가는 사할린을 역사적 고향으로서 부각시켰다. 다른 일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1Q84(1984)>는 체호브의 작품 <사할린 섬>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작품으로 소설의 첫 장에서는 자신의 역사적 뿌리에 헌신하는 사할린 한인 타마루 케니티는 2차적 주요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20- 21세기 일본문학 속에 사할린과 쿠릴 섬> 연구서는 동양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국적 요소와 연관된 장소이기도 한 사할린 섬의 공간적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 책을 지역역사, 언어학 교수,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타치아나 파블로브나 (사할린 교육진흥원)

제79차 재외동포포럼: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역사적 의미

김병학 알마티 한국문화센터 소장, 모국어와 민족문화 전파 역할 연구

재외동포신문이 후원하는 제79차 재외동포포럼이 2월 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병학 알마티 한국문화센터 소장(전 카자흐스탄 한글학교장)이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 모국어와 민족문화의 전파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동 고려인 극장

김 소장은 먼저 '원동 고려인 극장'에 대해 설명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초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1932년 9월부터 1937년 9월까지 운영된 원동 고려인 극장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고려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창단 당시 공연예술은 언론, 교육기관과 함께 연해주 고려인 문화예술의 삼두마차 중 하나로 꼽혔다. 조선신파속청단, 김 니콜라이연주단, 신한촌구락부 연예부, 조선중학 연예부 등의 소인 예술단과 자생 악단들이 활약했다.

1935년은 유학파들의 귀향과 새로운 인재들의 입단으로 무대예술에 꽃이 핀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단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운영된 시기이기도 하다. 단원이 부족해 1인 다역을 맡았고, 월급을 다시 내놓고 가재도구를 무대장치로 사용하기도 했다. 목숨을 걸고 무대를 지킨 1935~1937년 사이에는 고전이라 불리는 '동북선', '춘향전', '심청전', '장한몽' 등이 탄생했다. 역사적 사실들을 담아낸 극이다.

강제이주와 극장의 분열

강제이주가 실시되면서 극장도 분열을 겪었다. 원동 고려극장은 단원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나뉘어 이주되면서 2개의 극장으로 나뉘었다. 고려인의 주요 문화·예술과 학술기관이 모두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면서 우즈베크공화국의 극장들은 인적·물적 자원의 어려움을 겪었다. 193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우즈베크공화국 타쉬켄트 조선극장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으나 순회공연 지역을 확장하는 등 1950년까지 활동을 이어나갔다. 우즈베크공화국에는 호레즘 주립 조선극장이라는 우리말 극장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나 1942년에 타쉬켄트 조선극장으로 통폐합됐다.

제2차 세계대전과 분열된 극장의 통합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쟁부상자 위문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갈춤, 한산춤 및 우리말·러시아어 전시가요를 공연했다. 1946년부터는 조정구 극장장 시대가 열리며 극장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조정구 극장장은 단원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

타쉬켄트 조선극장 배우들과 북한파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할린 조선극장이 운영되기도 했다. '홍길동' '장화와 홍련' 등이 무대에 오른 이 시기에는 정인목 등 무대예술 전문가가 등장했으며, 만능 연극인 김해운의 활약이 돋보이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순회공연을 비롯해 오지와 험지를 오가는 순회공연을 활발히 펼쳤으나 사할린 조선극장 역시 1959년 7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도약의 발판과 변영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은 순회공연지역을 확대하며 극장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1955년 9월 수도 알마티에서 시작된 순회공



연은 카프카스, 모스크바 공연을 거치며 1964년 1월에는 공화국적 지위를 갖는 조선극장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1956년 타쉬켄트 극장대학에 조선배우과가 개설돼 1960년에는 첫 졸업생 14명이 입단하며 제2세대 배우들의 시작을 알리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극단 변영의 시기였다. 1960년대 초반, 프로 극작가 한진과 전문연출가 맹동욱이 등장하며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1982년 9월에는 극장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모스크바에서 '산부처' '지옥의 종소리' '춘향전' 등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아리랑 가무단은 소련 전역에 알려졌고, 1982년에는 극장 역사를 총정리한 김이오씨프 저 '소비에트 고려극장'이 저술되기도 했다.

쇠락의 시작

그러나 모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배우들이 줄어들면서 고려인 극단의 쇠락이 시작됐다. 희곡작가는 사실상 2대에서 대가 끊겼고, 배우들의 기량 또한 약해졌다. 모국어 문화 쇠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모국어 가요가 배제되면서 모국어 가수의 공연기회가 축소됐고, 가요 작사자 및 작곡가의 창작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시대적 혼란을 거치며 극단과 가무단은 파산 상태에 빠졌다. 고려인 원로들이 정부에 건물 제공을 요청했고, 1999년에는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강당으로 임시 입주하게 됐다. 2003년 가을에 들어서야 새 극장건물에 입주하며 오늘날 고려극장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고려극장은 '기억' '나무를 흔들지 마라' 등의 작품을 올렸다.

연구의 의의

김병학 소장은 고려인들의 희곡이 풍부한 토속어와 방언, 다채로운 속담과 구어체 관용구, 러시아어를 직역한 각종 모조어들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모국어 연극과 노래 전파를 통해 고려인들이 민족성을 지키고 모국어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2017년은 고려인이주 80주년, 고려 극장 창설 85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고려 극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9회 포럼 진행에 앞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이 취임식이 거행돼 제4대 조남철 이사장이 제5대 조룡제 이사장에게 바톤을 넘겼다. 조룡제 신임 이사장은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며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연구원의 협력으로 재외동포포럼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외동포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Однако был (и есть) у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существенный недостаток. Это –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нак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знать для овладения началом письменности. Если в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ах алфавит составляет обычно от 25 до 35 букв и его запоминание занимает у детей в школе обычно от месяца до двух, то, чтобы выучить приемлемое количество знаков в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нужно затратить не мене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Например, чтобы читать свободно газетный текст, нужно постоянно знать около 2–3 тыс. иероглифов (это, например, обязательное знание при выпуске из корейской или японской школы). Люди научные знают, обычно, около 10 тыс. знаков, а самые объемные словар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толкования около 60 тыс. иероглифов. Как вы сами можете понять, письменность в Аз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ановилась уделом очень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обязательно богатой) прослойки элиты. Для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она была недоступна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древнерусском Новгороде археологи находят тысячи берестяных грамот, на которых записаны самые разные фразы именно от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 от расписок в получении долга, договоров о встрече, уличных стишков и друг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эньянь (будем китайскую иероглифическую письменность называть именно так) был удел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творческой элиты, религиозных и конфуцианских проповедников. Впрочем, по мн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а, научить некоторых избранных вэньяню не составляло никакого труда (для этого существовали академии и школы, а также частные учителя), а остальные и так проживут. Была эта система даже некоторой защитой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литы, отсекая лишние и случайных людей, – обычный, бедный человек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мел шансов подняться по чиновничьей лестнице, поскольку денег на получение достой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 него не было (хотя в том же Китае, теоретически сдать экзамен на чиновника и достичь высо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мог каждый). Система отсекала от образования не только обычный народ, но и, например, женщин из дворянских слоев – немногие отцы готовы были оплачивать дочерям дорогостоящее обучение.

Ван Седжон уважается простым народом именно за его нестандартное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ло преступить вековые традиции. Ван собрал группу ученых, которые создали трактат *Хунмин Чоным* (Наставление народу о правильных звуках) с основами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получившего название *хангыль*. Следует сразу акцентировать внимание – хангыль был по задумке авторов вовсе не отдельной систем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н был в то врем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именно простому народу чтение иероглифов.

Создание хангыля произошло в конце 1443 – начале 1444 г. (опубликован в 1446 г.) и с тех пор, обычные люди, женщины могли приобщиться к письменному знанию.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создание хангыля и расцвету культуры в Корее. Однако еще очень долго – вплоть до XX в.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считался всего лишь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ой для вэньяня. В офици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окументах он появился только после реформ года Кабо – в 1894 г.

Сейчас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считается в Корее национальным достоянием, 9 октября в Южной Корее и 15 января в Северной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хангыл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Для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он является источни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рдости, а ван Седжон, к заслугам которого несомненно относится появление хангыля, – лучшим и достойнейшим королем из всей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 СО

Литературное краеведение

ОСТРОВНОЙ МИР

В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ом отде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ышла книга Елены Иконниковой и Александры Никоново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япон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X – XXI веков». Несмотря на научный характер, книга написана доступно и интересно и адресована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читателей. Монограф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бзор творчества япо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обращавшихся к Сахалину и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в XX – XXI веках. Авторы монографи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и произведениям, написанным о Сахалине и на Сахалине в период Карафутто (1905–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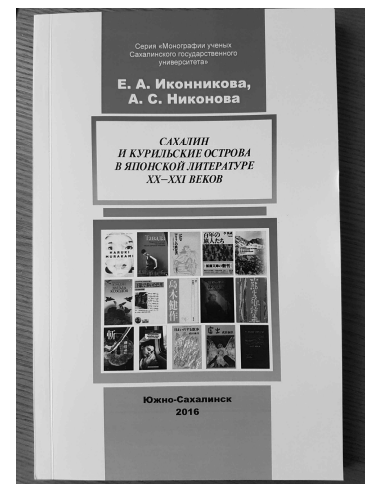
Также в работе нашел отражение и корейский аспект. Книга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аннот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 один из параграфов главы «Сахалин как фактическая и как малая родина японских литераторов» посвящен японскому писателю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Ри Кайсэю (род. 1935). Читатель узнает о трудной и вместе с тем интересной судьбе писателя, который свое детство провел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находившимся под юрисдикцией Японии. Спасаясь от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после прихода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семья Ри Кайсэя, «маскируясь под японцев, тайком пробралась на корабль япо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уже взрослая жизнь писателя сложилась именно в Стране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В ранн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писатель показал драмат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историк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япо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на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и отношения близких людей. В 1981 году Ри Кайсэй посетил Сахалин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СССР. Результатом поездки стала книга «Путешествие на Сахалин» (1983), где автор вновь вернулся к теме семей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трений». На примере своей семьи автор показал боль и трагед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й», их стремление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культуру как в японской, так и в русской среде.

Тем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также поднималась Ри Кайсэем в книгах «Мой Сахалин» (1975), «Запретная земля» (1977), «Биография беженцев» (1980) и др.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другого японского автора, Мураками Харуки (род. 1949), разнопланово представлены сахалин-



ские реалии, а книга «1Q84» (2009) построена на интересе к «Острову Сахалин» Чехова. Причем еще в первой части романа второстепенным героем становится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Тамару Кэнъити, свято преданный сво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корням.

В монографии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япон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X – XXI веков» мир остров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ахалина раскрывается перед читателями через призму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ы, одно из мест в которой отнесено к корейскому компоненту.

ТАТЬЯНА ПАВЛОВА,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Сахалин–Южная Корея: история трех книг»

11 февраля в 17:00 в Музее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 Мира, 104 состоится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Сахалин–Южная Корея: история трех книг».

На вечере широкой публик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и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шедш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Это работы Анатолія Тимофеевича Кузина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лии Ивановны Дин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и мемуары Лю Си Ук «Полмесяца на полевоом стане» (книга содержит оригинальный корейский текст и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сделанный Пак Сын Ы).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реди взрослых членов семьи старшая дочь чаще всего встречается с родителями

Среди взрослых член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старшая дочь чаще всего встречается с родителя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и Сеуль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публиковав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среди тысячи взрослых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В качестве наиболее контактирующего с родителями члена семьи 36%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ли старшую дочь, 33,8% – старшего сына, 14,4% – второ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сыновей, 12,9% – вторую и последующих дочерей. В результатах аналогичного опрос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ся 10 лет назад,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имал старший сын, а второе – старшая дочь. В этой связи организаторы опроса комментируют, что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слабляет патриархат и усиливается матриархат.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инобороны РК и США буд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круглосуточную связь

Министры обороны РК и США Хан Мин Гу и Джеймс Мэттис договорились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стоянные круглосуточны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вое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двух стран на фоне провокационных действий Пхеньян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обороны Р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едложение выдвинул глава Пентагон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ихся в минувшую пятницу в Сеуле переговоров с гла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оро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Хан Мин Гу принял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Мэттис указа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оюз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доверии и его нужно укреплять, поддерживая непрерывный диалог. Он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дал указание своим подчинённым находиться в контакте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Подобная позиция подтверждает готовность США к дальнейше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в целях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ровокациям в нынешней нестаби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СК развивается рыночная торговля

В СК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Ким Чон Ына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официально действующих рынков. В 2015 году их насчитывалось около четырёхсот, а через год уже 530. На спутниковых снимках города Хесана провинции Янгандо с населением 190 тыс. человек видны пять рынков. Даже сотрудники управления торговли,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за вопросы сбыта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товаров, торгуют на таких рынках, обеспечивая себ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Ежедневные сборы с торговцев достигают 220 тыс. долларов.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постепенном развитии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СК.

РК готовится к VIII зимним Азиатским играм

3 феврал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пределения состава сборной РК, котора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VIII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с 19 по 26 февраля в Саппоро. Сборная страны на этот раз поставила цель получить 15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заняв второ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ёте. Честь страны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будет защищать 142 спортсмен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второ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Ю Дон Хун, презид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Кореи Ли Ги Хон и другие.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Ю Дон Ху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жут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радовав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заняв второ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ёте, что подтвердит высокий статус РК в мире спорта.

Поэт Ко Ын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итальянского фонда Fondazione Roma

3 февраля извест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эт Ко Ын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итальян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фондов Fondazione Roma. Этот фонд с 2006 года пров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Портрет поэзии», а с 2014 года вручает награды поэтам, чье творчество получило признание во всем мире. Ко Ын стал четвертым по счету обладателем награды и первым среди поэтов Азии. С 2000-х годов в Итал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и его сборника стихов под названиями «Цветок мгновения», «Остров песен» и «Что».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назвали Ко Ына выдающимся поэтом, создающим свое творчеств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ыло отмечено также, что он воспевае жизнь и вселенную своей тончайшей восприимчивостью на основе богатейшего опыта, накопленного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70 лет нелегкой современно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Института Конфуция отказано во въездных визах в РК

РК отказа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Института Конфуция в выдаче рабочих виз.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заявляют, что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В продлении виз было отказа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евят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Института Конфуция, работающим в РК.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одного из сеульских отделений института вынужден был вернуться в Китай из-за отказа в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Институт Конфуция -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Пекина, цель которого - познакомить мир с кита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китайским языком. Первый Институт Конфуция в 2004 году был открыт в Сеуле.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Института Конфуция составлены Пеки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ы. Пекин продолжает наращивать давление на Сеул, вводя против него санкции за решение разместить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американские комплексы ПРО THAAD. Так, введ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Южнокорейским артистам запрещено давать концерты, сниматься в Китае. Кроме того, Пекин ограничил вво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Есть единичные случаи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косм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вышли на китайский рынок. (RKI)

Грани истории

Юность, которая с нами

На минувшей неделе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Стол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мсомол: грани истории (1925-й – начало 1990-х годов)», вышедшей в свет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Дальпресс» г. Владивостока.

Это науч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фессора кафедры «Теория и ист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натолия Тимофеевича Кузина. Островным корейцам он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в частности, как автор трудов по проблемам истории 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их диаспоры. Всего же перу эт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я принадлежат более 300 работ, свыше 40 из них переведены на корейский, япон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и.

Новую монографию А.Т.Кузин посвятил 9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омсомоль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зданной в мае 1925 года в г.Александровске. труд профессора – это в своем роде первое в Росси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мсомоль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девять десятилетий.

Автор во многом был первопроходцем в изучении этой темы. За два года кропотливой работы он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4 тыс.дел и документов, с которых был снят гриф «секретно», ознакомился с подшивками газеты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за 50 лет, ведь областное молодежное издание все это время изо дня в день писало летопись островного комсомола в лицах, фактах, событиях.

А.Т.Кузин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и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л огромный архивный материал. Не претендуя на полномасштабнос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он сделал акцент на наиболее ярких событиях, определив их как «грани истории». А началась она с трудовых подвигов молодежи, которая с 1930-х годов по призыву партии прибывала на Северный Сахалин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чтобы осваивать природные богатства и помог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государства. Патристический порыв комсомольцев не могли сдержать ни холод, ни голод, ни цинга, ни тяжелый ручной труд, ни ужасные бытовые условия. Молодежь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преодолевала трудности, проявляя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патриотизм, преданность высоким идеалам. Она внесла неос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а, в Победу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послевоен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островной территории.

Героями книги А.Т. Кузина стали 2200 комсомольцев. Среди них не один десяток име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личившихся в нелегком труде и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в 1950-х – 1980-х годах. Это секретарь комитета ВЛКСМ Северо-Холмского рыбокомбината Альберт Тен,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кома ВЛКСМ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Ли,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Красногорского райкома ВЛКСМ И.С.Кан, работник аппарата обкома ВЛКСМ Галина Ким, капитан сейнера «Одесса», делегат XV съезда комсомола Владимир Хван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А.Т.Кузин воспроизвел в книге статью из газеты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1960-х годов, озаглавленную «На дела хорошие». В ней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о 18-ти десятиклассниках корейской средней школы № 2 г. Макарова.



Получив комсомольские билеты, они написали коллективное заявление на имя секретаря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кома ВЛКСМ Г.Плюснина. Они просил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определить их в отделение «Поречье» совхоза «Макаровский», так как они хотят своим трудом помочь подъем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айоне. Тогда в новом отделении «Поречье» был дефицит кадров, и выпускники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решили создать свою механизированную полеводческую бригаду.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ни изъявляли желание поработать животноводами и механизаторам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иобрели на уроках труда, на колхозных полях. Лица этих юных патриотов глядят с газетной страницы.

Выступая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монографии А.Т.Кузин сказал:

- Когда-то Лев Толстой не советовал братья за перо и не описывать события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им не исполнится сто лет. Мы с членами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и оргкомитета избрали другой путь, посчитав, что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особенн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ужны не мертвым, а живым людям.

Издание содержит более 700 фотоиллюстраций, ярких свидетельств очевидцев, оно написано (несмотря на научность подхода) живым языком, эмоционально, ведь судьба автора книги также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а с комсомолом.

Сегодня многие признают, что аналогов такой мощ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ле прекращения ее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 и не найдено. Не случайно книга А.Т.Кузина адресована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читателей и, безусловно, -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для осмысления, сохранения памяти и, быть может,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лучших форм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с молодежью.

Как отметил автор, идея создания книги принадлежит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Коваленко, помощнику первого секретаря обкома ВЛКСМ с 1986 по 1992 годы. Именно он возглавил оргкомитет по изданию книги, благодаря работе которог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ее издание.

Презентация стала еще и радостной и сердечной встречей комсомольцев разных лет. Они предложили автору к 100-летию юбилею ВЛКСМ выпустить второе дополненное издание монографии. Обещали поделиться интерес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фотографиями 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Как знать, быть может, через полтора года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новь порадует островитян новыми гранями истории и своего таланта.

Людмила Степанец.

Анализ генетической карты людей неолита помог определить корни корейцев

Анализ генетической карты древних людей неолита, которые жили 7.700 лет назад, помог определить корни корейце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 феврал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ллектив учёных Ульсан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и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России и Германии. Они определ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народы и популяции Земли, генетический состав которых более всего похож на таковой у древних охотников и собирателе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енетики, современ-

ные жител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частности,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похожи на древних охотников и собирателей. Особенно хорошо древняя структура ДНК сохранилась у ульчей — коренного народа Приамурья. К подобным выводам учёные пришли, проведя гене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ДНК, извлечённой из останков людей, которые жили примерно восемь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которой раньше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древние коре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ё и Тон-Пуё.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ные древние ДНК принадлежали двум женщинам, которым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было примерно 20 и 50 лет. Их останки и останки ещё трёх человек были найдены в пещере «Ворота дьявола»,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недалеко от границы с Китаем и СК. Ав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их работ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отсутствии масштабных миграций среди популяци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тличие от, например, крупных перемещений людей в Европ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публиковано в журнале Science Advances. (KBS World)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обсуждают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региона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Куриль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и материк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 экология. Эти и другие темы обсуждались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НФ составили пакет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ни затрагивали ряд актуальных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облем.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шла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доступной среды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обеспечении «детей войны» путевками в дома отдыха, поддержке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й, внедряющих инновации, импортозамещающие технологии, обеспечении сохранности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ак отм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НФ, по большинству затронутых вопросов они получили пол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мерах,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чтобы решить поднятые проблемы. Но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предстояло обсуди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НФ Александр Мацук,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ароходства», поднял тему пассажирских и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между Куриль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оизошли кардин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в отношении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к этой проблеме. Пополняется новыми самолетами парк региональ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 результате заметно улучшилась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 Хабаровске вскоре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морски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ов. Они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ь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Еще два морски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аромов построит Амурской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находящийся в Комсомольске-на-Амуре. Они должны выйти на линию, соединяющую порты Ванино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и Холмс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мени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паромы, срок эксплуатации которых подходит к концу. При этом Александр Мацук высказал пожелание, чтобы пр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и судов были учтены сложные условия предстоящей эксплуатации в водах, омывающих берег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н рекомендовал наладить строгий контроль за ходом и качеств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аромов.

Олег Кожемяко предложение поддержал.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лучило от главы области поручение - тщательно проработать техническое задание на подготовку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оответствие судов реальным условиям эксплуатации, наладить контроль за ход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н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ю ОНФ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над проектом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а.

Как научить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безопасному поведению на дорогах? Эту тему затронул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отделения ОНФ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помощник военного комисса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По его мнению, важную роль в этом деле может сыграть создание всесезонного крытого автогородка. На его базе можно было 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уче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выкам безопасного поведения. Между те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уже разработана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на автодром средней школы №31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необходим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лето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добные автогородки есть при школах №1 в Аниве и №7 - в Охе.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учение малышей правилам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ысказ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фронтвики» 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эколог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региона, в частности, судьбой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свалок.

Губернатор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в 2017 году, который объявлен годом экологии, будет запущен процесс кардинального решения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острых проблем области - утилизации отходов.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НФ Константин Тюкавин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многоканальный телефон, по которому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ли бы получ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расписании работы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еме у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нечно, все эти сведения размещаются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Но они остаются недоступными для многих пожилых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не осво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связи. Теперь этим вопросом по указа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займ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тронули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также тему активиза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школ 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уществующих. Как отметил Олег Кожемяко, эта работа в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4-2020 годы».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ликвидация второй смены и вывод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зданий, имеющих высо-

кую степень износа. С этой целью, в частност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школы № 1 в Аниве, строится школа на 800 мест в Долинск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детского сада в селе Тунгор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дбирают площадку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еще одного среднего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 на 3000 учеников.

Активист ОНФ Анатолий Кобелев,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аков Анивского залива, считает, что популяция дикого лосося, перестаящаяся в реках на юго-востоке Сахалина,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а из-за неправомер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экологии. Он считает,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срочные меры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рыбных ресурсов. По мнению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можно за счет действенной охраны естественных нерестилищ лосося. А наладить ее должны сам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компании, в ведении которых находятся нерестовые реки. Между тем,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рыбопромысловых участк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области, добывает очень скромные объемы «красной рыбы». Компании, фактически состоящие из нескольких человек и работающие только во время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не могу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даже разви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этому они не способны обеспечить и защиту нерестилищ от браконьеров. Обсудив этот непростой вопрос,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ришли к общему выводу - необходимо консолидировать усил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по охране рек.

На бесхозные детские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Кирилл Кобык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полком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НФ. Установленные без должного оформления во двор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тараниями некоторых депутатов, они не были приняты на баланс городскими властям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лощадки ветшают и мог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угрозу для детей.

Позиция губернатора получила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НФ.

-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поднимает ре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беспокоя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завершая беседу. - Поэтому мы всегда готов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интереса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свою очередь, Александр Мацук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отметил,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НФ получили исчерпывающие ответы по всем поставленным вопросам.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Сахалина призывают активнее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для участ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льд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Игорь Быстров провел выездное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подготовки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17».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стоятся на реке Найбе возле села Стародубское 24 февраля.

Речь шла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льду, организации стоянк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размещении торговых точек, сцены.

-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создать одинаковые условия лова для всех, кто приедет на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Для этого даж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измерение глубин, чтобы не получалось, что кому-то досталось ловить в более вы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на фарватере, а кому-то на мелководье,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адим Турбало.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для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Сейчас мэрия расчистила площадку, где помещается 3 тысячи автомобилей. Ближе к началу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яви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парковка еще на 2 тысячи маши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льду» смогли поместиться только 1,5 тысячи.

-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 же расширить места въезда, развести потоки заезжающих и выезжающих авто, установить указатели движения и расставить по стоянке парковщиков, - добавил Вадим Турбало.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леч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задействуют более мощную звуковую аппаратуру. Прежн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 обеспечивало хорошую слышимость по всей площади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Быстров призвал организаторов активнее подключиться к приему заявок и регистрации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щ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организатора Александр Кучински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участникам можно, позвонив по номеру: 8 (4242) 301-004.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февраля.

-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правила соревнований будут изложены в Интернете. Он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зменились. Количество команд не ограничено,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по 4 человека.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2017» делится на два этапа - командный зачет и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Командам дается час на лов наваги, ее размер - от 19 см. Чем больше вес улова у отдельно взятого рыбака, тем выше шанс пройти в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Как и год назад, появится отд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рыба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Кучинский.

Как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Быстров, гостями праздника станут и приглашенные делегации из большинства приморск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апомним, чт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21 по 24 февраля состоится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семинар-практикум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а также инициативы по вылову биоресурсов в шестимильной зоне и их прямой реализации. В рамках семинара по изуч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нововведений на остров придут профи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рыбодобычи и организации торговл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а также научных сообществ из Мурманской, Архангельской, Магаданской, Амурской,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ей; Камчат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МЧС России и руковод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истему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начальником Сибир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МЧС России Сергеем Диденко. Обсуждались метод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их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 Система МЧС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слаженно и сообщать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Я привез на Сахалин ряд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ешений социаль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переход к активному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граждан, укрепление единых дежурно-диспетчерских служб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более широкое привлечение населения к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комплекс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рассказал о цели своего визита Сергей Диденко.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Олег Кожемяко отметил, что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держат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Он подчеркнул такж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МЧС России.

- Для нас деятельность МЧС России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едь регион находится в сейсмоопасной зоне, постоянно существует риск прохож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циклонов, поэтому мы работаем в тесном контакте с Глав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о наработках, которыми вы располагаете.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институт сельских старост и новая система оповещения в рамках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ую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внедрять, - подчеркну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на Сахалин начальник Сибир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МЧС Росси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работой аппаратно-программ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стретился с личным составом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сетил областной склад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зерв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15-ое место в стране по показателям открытости бюджетных данных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днялся на 52 пункта в рейтинге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ейчас он занимает 15-ое место. Годом ране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ходилась на гораздо менее почетной 67-ой строчке. По показателю открытости бюджетных д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лидирует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а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Анна Харченко, докладывая губернатору Олегу Кожемяко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ведомства.

Напомним,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коло года назад по решению главы области были заключены эффективные контракты. Они позволяют оценить работу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едомст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стижения цел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 внимание принимается положение дел в курируемой отрасли, качество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населению, у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Анны Харченко, установленное задание по мобилизации доходов ведомство перевыполнило в 3,6 раза. Вместо 1,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бюджет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5 миллиардов, администрируемых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ти средства получены за счет грамот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на депозитах в коммерческих банках временно свободных денег областной казны.

Усиле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В 2016 году сотрудники ведомства провели 71 проверку. Годом ранее их было всего 53.

- Проверками были охвачены средства в размере 17,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ообщила Анна Харченко. - В результате выявлены нарушения на сумму 5,8 миллиарда. Так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овер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первые.

Олег Кожемяко итоги работы финансового ведомства одобрил.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모국·동포 동반성장 강화"

“차세대 주류 진출로 거주국서 동포 영향력 커져... 모국과 윈윈 모색”

재단 창립 20주년 맞아 제주도 이전 "서울사무소로 동포 불편 최소화"

주철기(71)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차세대의 주류 진출 등으로 거주국에서 영향력이 커진 동포사회와 모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2017년은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라며 “설립 초창기와 비교하면 동포사회도 대한민국도 비약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또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과 지금까지 소홀했던 한인 입양인, 해외 다문화 가정, 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 등도 한민족 공동체로 끌어안아 모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말로 예정된 재단의 제주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서울사무소를 두어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600억 원을 넘어섰다. 늘어난 예산 어떻게 쓰이나?

-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도 3~4% 수준인 데 비해 재단은 10% 증액됐다. 그만큼 정부도 재외동포를 중시하고 있다. 한글학교 지원·청소년 초청연수·장학사업 등 차세대 육성 확대와 국내 청년의 한상기업 취업을 늘려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이 늘어나도록 힘쓰겠다. 최근 동포사회는 거주국에서 장관·국회의원·대법관·대학 총장 등 지도층에서 활약하는 인사가 늘어나는 등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도 경제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동포사회와 모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쏟겠다.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특별히 계획하는 사업은?

- 재단은 지금까지 720만 명의 재외동포를 섬기는 데 주력해왔다. 거주국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20주년을 맞아 해외의 재외동포 관련 학자, 관련 단체 종사자, NGO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동포사회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언하는 ‘글로벌 한민족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고 재단의 중장기 사업방향도 마련하겠다.

- 고려인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지 80주년을 맞이했다. 구소련 해체 후 아직도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고려인을 위한 재단의 지원 방침은?

- 러시아·CIS·국내 체류 등 여러 곳으로 흩어진 고려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사 재조명을 통해 올바른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거주국과 국내의 고려인 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하는 학술회의를 열고 거주국에서 자체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제·음악회·전시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지원해 그동안의 노고도 위로한다. 현지에서 무국적자로 지내거나 국내 장기 체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 한인 입양인·해외 다문화 가정·국내 체류 재외동포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 20만 명에 이르는 한인 입양인과 정확



한 현황도 파악 안 되는 다문화 가정은 재외동포임에도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비중은 다른 재외동포보다 높다. 방지하면 현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포사회는 물론이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은 일시 방문보다 장기 거주가 늘고 있다. 이들은 생김새는 비슷해도 내국인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은 현황을 파악한 후 차세대 육성부터 하나씩 지원을 늘려가겠다.

- 동포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차세대 육성이고 그 중심에 ‘한글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 재단의 지원 방향과 기준은?

- 예산이 한정돼 있어 중요성에 비해 지원액수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재단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늘여가고 있다. 지원액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학생·교직원 수와 현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고 현지 공관과 한국교육원의 의견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열악한 고려인·조선족 학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교수법 강화 등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는 해마다 인원을 늘리고 있다.

- 국내 취업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한상(韓商)을 통한 해외 취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 지난해 9월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국내 청년의 한상기업 인턴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1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순차적으로 교육을 거쳐서 파견하고 있다. 청년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에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는 인턴 과정을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을 추진해 보니 취업 낙오자들이 아니라 외국어 실력도 출중하고 도전정신과 패기가 있는 준비된 인재들이 몰리고 있어서 한상들도 반기고 있다.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은 한민족의 경제지평을 넓히는 일이라서 파견 후 꼼꼼하게 사후관리까지 챙기려고 한다.

- 7월 말로 예정된 재단의 제주도 이전으로 인해 동포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 재단을 방문하는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두고 필요하면 직원이 서울을 오가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재단 홈페이지와 코리아넷 등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를 활성화해 사이버상의 소통도 강화하겠다. 각종 초청연수는 서울사무소에 전담 부서를 둘 예정이다. 제주도 이전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의 쉼터 역할과 연수원·각종 민원 처리를 맡게 될 ‘재외동포 지원센터’ 건립이 더 시급해졌다. 올해 예산이 반영 안됐지만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계속 필요성을 알리겠다.

(출처: 코리아넷)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7

한국의 전래 동화가 재미있어요

(전호의 계속)

타냐는 이번 학기에 개인 사정으로 휴학할 셈이다.

→ Тая по лич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в этом семестре планирует взять академический отпуск.

-는(으)ㄴ 셈이다;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б "значит, ч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римеры:

이익이 없었으니까 이 사업은 실패한 셈이다.

→ Прибыли нет. Значит этот проект не удался.

이곳에 작년 봄에 이사를 왔으니까 1년간 산 셈이다.

→ Я приехал сюда весной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начит получается я живу здесь год.

(5) - (으)ㄴ 양으로 "исходя из соображений, что ...", "намереваясь..."

Примеры:

마음껏 쉴 양으로 제주도에 갔다.

→ Намереваясь хорошо отдохнуть, мы отправились на Чечжудо.

그를 볼 양으로 그의 집에 무작정 찾아갔다.

→ В надежде увидеть его, я отправился к нему домой.

쓰기연습

1. 보기와 같이 '-(으)ㄴ 바에는, -(으)ㄴ바에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방학 때 집에서 놀다 /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겠다.**

→ **방학 때 집에서 놀 바에는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겠다.**

(1)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다 / 왜 일을 시작했어?

→

(2)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를 하지 않다 / 학교를 그만 두는 게 어때요?

→

(3)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 / 굶는 게 낫다.

→

(4) 하다가 중단하다 / 아예 시작하지 마시다.

→

(5)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 / 차라리 그만 둬시다.

→

2.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으)ㄴ 법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바꿔 쓰십시오.

보기 **어제 이러 난 상황에 대해서 듣고 보니 동생 말도 그렇다.**

→ **어제 이러 난 상황에 대해서 듣고 보니 동생 말도 그럴 법하다.**

(1) 요즘 한국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2) 작년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전문용어를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

→

(3) 이 시간이면 친구가 학교에 이미 와 있다.

→

(4) 날씨가 흐린 걸 보니 눈이 내린다.

→

(5) 날씨가 많이 흐려서 비가 오다.

→

3. 보기와 같이 '-(으)ㄴ 성싶다'를 사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꿔 쓰십시오.

보기 **면접 보러 온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다.**

→ **면접 보러 온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성싶다.**

(1) 창밖에 후두둑 소리가 난 걸 보니 밖에 비가 오다.

→

(2) 어제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 온다.

→

(3) 과제가 많아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다.

→

(4) 가을 축제 때 재미있는 콘서트를 만들어보면 재미있겠다.

→

(5) 우즈베키스탄처럼 과일 당도가 높은 나라는 별로 없다.

→

4. '- 셈이다'를 사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꿔 쓰십시오.

(1) 선생님은 유머감이 뛰어난 분이어서 세미나 시간에도 농담을 많이 하다.

→

(2) 어느 철학자는 "불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했다.

→

(3) 아프리카의 아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행복하다.

→

5. 보기와 같이 '-(으)ㄴ 양으로'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여 완성하십시오.

보기 **어제 일은 친구를 해치다 / 한 일이 아니었다.**

→ **어제 일은 친구를 해칠 양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

(1) 우리 교수님은 남은 인생을 학생들과 보내다 / 한국에서 돌아왔다.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родление работы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связано еще и с тем, что на юго-западном склон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явилось постоянное освещение. Здесь установлено 122 опоры.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ссы составила 4,2 к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고아·장애인·다자녀 가족을 위한 아파트 80 채 매입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는 공동주택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 아파트 80 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주중양도시 행정부 홍보실에 따르면 고아, 부모의 보호가 없는 아동, 장애인들과 다자녀 가족들에 한해서 입주시킬 예정이다.

시행정부는 방 1, 2, 3 칸 짜리 아파트를 매입, 배분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주택정책관리국은 주거 임대와 매매 가능한 자들이 콩쿠르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거 매매 절차에 대해 홍보했다. 주택들은 입주 가능하도록 위생과 상하수 시설이 정비되고, 수리되어 언제든 입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과 취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월요일- 금요일까지 (14:00시-17:00시) 전화 (4242) 300-642 (추가. 7)로 문의할 수 있다.

Мэр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пит 80 квартир для сирот, инвалидов и многодетных

Мэр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ланирует закупить 80 квартир для горожан, нуждаю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м жилье.

Как поясн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их число вошли сироты, дети, оставшие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маломобильные горожане и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Власти города намерены приобрести 1-, 2- и 3-комнатные квартиры. В связи с этим управление жилищной политики сообщает о закупочных процедурах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и предлагает потенциальным продавца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ах.

Квартиры должны отвечать необходимым санитарно-техническим нормам, быть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ми, свободными 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ми к заселению.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ъявляемых

требованиях к квартирам и порядке их приобретения можно узнать с 14:00 до 17:00 по телефону (4242) 300-642 (доб. 7)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2016 년에 사할린주에서 신생아 6900 명 태어나

2016년 12개월간 사할린주에서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주내 신분등록소들에서 사망자 6394명과 신생아 6948명이 등록되었는데 그중 110쌍은 (쌍둥이와 세 쌍둥이) 다자녀 출산이다. 인구의 자연증가는 554명, 2015년 동시기에 자연증가수는 177명이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증가한 곳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이다.

주내에는 결혼 4059쌍과 이혼 2794 쌍이 등록되었는데 2015년 동시기에 결혼은 4335쌍, 이혼은 2885쌍으로 나타났다.

사할린주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16년 12개월간 사할린과 쿠릴에는 2만1971명이 주거지를 이주했는데 그중 57,6%는 영주민으로 나타났고 2만2458명이 사할린주를 떠났는데 그중 71,6%는 거주등록을 말소했다고 전했다. 사할린주 내에서는 9683명이 거주지를 변경했고 이민자는 487명으로 감소했다고 사할린주통계국은 보고했다.

В 2016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вет появились 6,9 тысячи детей

За 12 месяцев 2016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6948 родившихся, в том числе 110 многоплодных родов (двойни и тройни), и 6394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554 человека,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5 года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177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4059 браков и 2794 развода против 4335 браков и 2885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5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ФМ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двенадцать месяцев 2016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 21 971 человек, из них 57,6%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22 45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1,6% сняты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9683 человека.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487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감사의 말씀

마카로브한인회, <사할린잔류 1세대 동포 초청 진료사업>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마카로브구역 1세대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은 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애쓴 박순옥 주한인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제1차 사할린 한인 1세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박순옥 회장님의 배려와 조직적 활동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할린한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 회장

Макаров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бабушки и их дети из г. Макарова, которые ездили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и леч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ыражают особые слова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оторые заслуживает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За чуткость,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ь, вним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о всем. За ту пользу, которую она приносит корейскому населению. Искренне желают президенту Пак Сун Ок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в её очень нелегкой работе, а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жителей пусть будут для неё великой наградой.

Ко Ен С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Макар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Вниманию жителей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11 февраля 2017 года в 16:00 в актовом зале Детского Дома Творчества состоится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лавка коре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